

A Research on the Improvement of Dining Space Design at Elderly Welfare Facility

복지관의 경로식당 공간 디자인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Ju, Jiyea 주지예* | Oh, Eunjin** 오은진 | Kim, Jungki***김정기

Abstract

Purpose: Balanced meal service is very important for the elderly to maintain good physical health. Good food and comfortable dining environment is also important for the elderly to prevent emotional depress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current problems of dining space in Korean elderly welfare facility. De-institutionalizing dining environment of elderly welfare facility will bring more meaningful social interactions among elderly users. **Methods:** Through literature research and case studies of welfare centers in the US and Japan, Elderly Dining Space Checklist was developed. Dining spaces of 11 welfare facilities in Seoul was analyzed by this checklist. It was administered by interior designers as well as facility staffs to achieve more credible results. Questionnaire for the elderly users of those dining space also prosecuted to broaden knowledge for creating improved environment. **Results:** Dining spaces of elderly welfare centers are lack of privacy and furnitures are not comfortable enough for the general users as well as wheelchair users. Elderly dining space users are seeking more private and comfortable spaces for the social communications. **Implications:** Dining environment for the elderly in Korea should develop more de-institutionalized design concepts.

Keywords De-institutionalizing elderly dining space, Elderly welfare facility, Social interaction space for the elderly

주 제 어 노인복지관, 경로 식당의 탈시설화, 노년기의 사회적 교류 공간

1. Introduction

1.1 Background and Objective

평균 수명의 증가로 급격히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노인 케어, 노인 의료 부분이 점차 강조되고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노인의 특성과 욕구를 이해하고 건강한 생활에 가장 기본이 되는 식생활관리를 통하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노인들이 식사하는 공간에 대한 연구도 필요한 시점이다.

혼자 식사하는 노인들은 균형 잡힌 음식 섭취가 부족하며, 위생을 유지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우울증의 증세도 보이게 되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데 위협 요소가 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외로움을 느끼는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 에 비해 영양소를 부족하게 섭취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다.¹⁾ 식사는 일상에서 신체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들을 적절히 공급하는 과정으로 건강 관리중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²⁾

또한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는지와 즐겁게 하는지 식습관을 측정한 연구에서,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즐겁게 식사하는 태도를 갖는 노인들의 영양 상태는 좋은 것으로 나타났고, 편식을 하거나 혼자서 식사를 하는 노인들은 영양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³⁾ 노후 생활에 있어 식생활은 가장 중요한

* Hongik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Design
** Director, Ph.D., Gnyamas Consultant, Visiting Professor, College of Architecture, Hongik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oh.eunjin@gmail.com)
*** Professor, Hongik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Design

1) 이병순·김문실·김영순·이남순·권경자·이예중, 노인 복지를 위한 노인 영양관리, 광문각, 2011.
2) 박은진, 대구지역 노년기 여성의 영양소 섭취상태 식습관 생활습관과 골밀도와의 관련성,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2006.
3) 홍순명·최석영, 老人의 生活樣式에 따른 食生活實態 分析, 1996.

부분이며, 커뮤니티 내에서 즐겁게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의 제공은 노인들의 건강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고령화가 먼저 진행된 국가들은 고령자들에게 균형적인 음식을 섭취할 것과 함께 소외감과 외로움 해소에도 도움을 주는 함께 모여 하는 식사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간과 공간의 부담감 없이 어울려 식사하기 위한, 커뮤니티 내 공동 공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노인들의 질환과 식사 지침에 맞는 환경 구성으로 외롭게 혼자 식사를 하는 것 보다 여러 명이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는 등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60세 이상 고령자를 위한 식사배달 서비스와 경로식당이 운영되고 있지만, 저소득층 노인들에게만 지원이 되고 있으며, 일반 고령자에 대한 서비스 체계화는 다양하지 못 하고 한정되어 있다.

또한 고령자가 심화되면서 경로식당을 이용하는 일반 노인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고령자를 고려한 식사 서비스 공간 구성은 매우 부족하다. 고령자의 신체적, 심리적인 상태를 고려한 가구배치도 전혀 구성되어 있지 않으며, 국내 경로식당의 식사 공간은 노인들만의 식사 공간이 아닌 복지관 내의 직원 식당과도 함께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고령자의 심리를 고려하여 식사 환경이 디자인 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⁴⁾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경로식당의 운영과 공간 환경이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있는지 조사, 분석 하여 경로식당의 공간 환경 디자인의 문제점에 대해 파악하고 개선방향의 제시와 더불어, 국내와 같이 대규모 위주의 경로식당이 아닌 많은 국가에서 시도하고 있는 커뮤니티 내 소규모 고령자 식사지원 센터의 적용을 목적으로 한다. 복지관내 고령자 식사 서비스 환경과 공간 디자인에 대한 문제점을 밝히고 개선을 위한 방향에 대해 제시하고자 하며 후속 연구를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1.2 Methods of Research

본 연구에서는 국내 경로식당 공간의 심층적인 조사 연구를 위하여, 노인들의 식사공간과 관련된 문헌조사를 통하여 경로식당 환경의 중요한 디자인 요소들을 추출하여 공간 체크리스트(checklist)를 작성하였다.⁵⁾ 이것을 토대로 하여 서울시 내 노인 종합복지관 7개소, 종합사회복지관 4개소, 총 11개소의 경로식당 시설을 대상으로 공간구성 현황을 파악하고 공간의 질적 요소에 대한 평가를 하였다.

공간체크리스트는 안전성(Safety), 이동성(Access & Way-finding), 편의성(Convenience), 프라이버시(Privacy), 쾌적성(Comfort), 가구배치(Furniture Layout), 색상계획(Color Scheme)의 7가지 항목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항목은 총 28개의 세부항목으로 구성하여 평가하였다.

심층적인 연구를 위하여 11개중 대표적인 4개의 시설을 선택하여 총 40명의 직원과 60명의 복지관을 이용하고 계시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경로식당 공간 이용 불편사항과 향후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특히 직원들의 설문 내용에 본 체크리스트의 내용을 포함하여 평가결과를 1차로 연구자에 의한 평가와 비교 분석하여 객관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2. Characteristics of the Welfare Center Dining Space for the Elderly

국내의 노인들을 위한 식사제공서비스는 주로 경로식당에서 제공되고 있는데 경로식당에 대한 구체적인 설치 기준은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서울시의 경로식당의 수는 현재 101개소로 운영주체는 종합사회복지관이 58개소, 노인복지기관이 29개소로 대부분이며, 기타시설로는 종교기관 등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비공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⁶⁾

2.1 The legal standards of elderly welfare center dining space in Korea

경로식당은 노인복지법 제 4조의 저소득 노인의 건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건복지증진의 책임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으로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경로식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다. 조례의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마다 차이가 있지만 다음의 내용과 같다.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해 경로식당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경로식당 이용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 차상위 계층 노인, 기타 저소득 독거노인들에게는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고, 그 이상의 경제적 능력을 갖춘 노인들에게는 실비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경로식당 이외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 및 먼 거리에 있는 노인에게는 식사를 배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⁷⁾ 시설에 관한 규정은 없으며 2010년부터 상시 50인 이상 운영하고 있는 경로식당 무료급식소 및 재가노인식사배달 사업소에 한해 식품위생법 제 88조에 의거하여 집단

4) 오은진, 박혜선, 커뮤니티 거주 고령자를 위한 식사서비스 환경에 관한 연구,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논문집, 2014.

5) Criag zimring, A guide to conducting healthcare facility visits, 1994, The Center for Health Design.

6) 서울시 2013 저소득 어르신 경로식당 무료급식현황, <http://opengov.seoul.go.kr/public/103116>.

7) <http://www.law.go.kr/ordinInfoP.do?ordinSeq=513911>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급식소 신고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집단급식소 시설기준에서는 조리장, 급수시설, 창고 등 보관시설, 화장실, 소방방화시설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주로 위생과 관련된 사항에 한해 규정되어 있다.⁸⁾ 건축적인 면에서의 현 시점에 적합한 경로식당의 공간 구성 및 공간의 기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2.2 Current Trends in Elderly Welfare Centers Dining Space Design and Case Studies

국외의 경우 우리의 경로식당에 해당하는 서비스와는 차이가 있으며 점점 대규모 시니어센터의 식사 서비스 보다는 보다 차별하게 식사할 수 있는 소규모 형태의 식사 서비스로 변화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영국과 미국의 런치클럽(Lunch Club)이나 최근 일본에서 시작되고 있는 커뮤니티 카페나 노인 居場所(이바쇼)도 이러한 움직임을 반영하고 있다. 9) 이바쇼는 “자신이 있을 장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노인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커뮤니티 내의 공간에서 다른 노인들과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¹⁰⁾ 단순히 식사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노인들이 친근한 공간에서 의미 있는 교류를 나눌 수 있도록 환경을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며, 단시간 안에 식사를 끝내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식사를 통해 노인 간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자신의 아이덴티티(Self Identity)를 유지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내 경로식당 조사에서도 수급권자나 차상위 계층보다 일반 이용자의 빈도가 훨씬 높으며, 이용 사유는 “따뜻한 음식을 먹기 위해”가 29.7%인데 반해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가 46.8%로 식사 자체만이 아니라 노인들 간의 교류가 중요한 것임을 보여 주고 있다.¹¹⁾

국외의 최근 사례 분석 결과는 노인을 위한 식사 공간구성은 탈시설적(Non-institutional)인 환경 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식사 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모든 경험이 쾌적하도록 디자인적인 면에서도 배려하고 있다. 여러 명이 앉는 테이블만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2인용, 4인용, 다인용의 가구배치로 보다 친밀한 대화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형성하고, 실내 마감재와 가구 재료의 선택도 관리 용이성만 배려하는 철재, 플라스틱 재료의 제품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다.¹²⁾

8) <http://www.law.go.kr>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집단급식소의 시설 기준.
 9) 오은진, 박혜선, 커뮤니티 거주 고령자를 위한 식사서비스 환경에 관한 연구, 2014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논문집.
 10) <http://www.arsvi.com/2010/20130430emk.htm> 생존학 E-mail Magazine No.33 일본 노년/고령연구회.
 11) 송성우, 무료 경로식당 운영실태 및 활성화 방안, 울산대학교 정책대학원 행정학 석사학위 연구보고서, 2011.
 12) Planetree and Picker Institute, 2010 Long-term care Improvement Guide : De-institutionalizing the Dining Experience pp.194-215.

2.2.1 Gary & Mary West Senior Wellness Center

미국, 샌디에고(San Diego)시 중심부에 위치한 Gary & Mary West Senior Wellness Center는 1927년에 건설되어 자동차 대리점으로 사용되었던 폐건물을 2011년에 레노베이션하여 노인을 위한 최첨단 커뮤니티 웰니스 센터(Senior Wellness Center)로 오픈하였다. 1개 층이었던 건물을 증축하여 2층에는 식당 공간을 두었는데 기존 건물의 두 배 이상의 공간을 식사공간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매일 아침과 점심식사를 일년 365일 제공하고 있다.

친환경적인 디자인 요소들을 도입하여 LEED Gold Certification을 획득하였는데 건물 외장 계획만이 아니라 내부에도 친창을 충분히 확보하여 쾌적한 느낌과 함께 다른 건물에 비해 25퍼센트 이상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센터는 미국의 다운타운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복지센터의 모델로 다른 곳에서도 유사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¹³⁾

[Table 1] Gary & Mary West Senior Wellness Center

 <p>(source: http://www10.aeccafe.com/blogs/arch-showcase)</p>	위치	San Diego, CA
	설립년도	2011.04
	규모	17,460m' 지상2층
	식당 위치	지상2층 100명 규모

식당공간의 디자인은 주방이 오픈되어 있는 오픈키친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원형테이블과 사각테이블, 벽면 등받이 의자 테이블 등 다양한 가구를 배치하고 패턴 바닥재와 의자의 색상계획을 통하여 밝은 느낌을 주고 있다. 공간도 충분한 여유 공간을 두어 휠체어의 접근이 어느 곳에도 가능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메인식당 외에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카페와 다양한 공용공간을 계획하여 노인들이 다양한 형태의 모임과 교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13) <http://www10.aeccafe.com/blogs/arch-showcase/2011/04/20/senior-center-in-san-diego-by-smith-consulting/>



[Figure 1] Dining Room and Cafe at Gary & Mary West Senior Wellness Center
(source: <http://www10.aeccafe.com/blogs/arch-showcase>)



[Figure 2] Lobby and Activity Room Design
(source: <http://www10.aeccafe.com/blogs/arch-showcase>)

2.2.2 North Shore Senior Center

미국 일리노이 주 노스필드(Northfield, Illinois)에 위치한 North Shore Senior Center, Arthur C. Nielsen Jr. Campus는 2000년에 대학교 부지내의 3,720M²의 창고 건물을 개조하여 오픈 되었다. 창고 건물의 특성을 활용하여 전체 공간이 기둥이 없는 오픈 스페이스로 계획되었다. 실내 공간에 스트리트(street)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가로등을 설치하고 바닥 패턴도 이에 맞추어 공간 내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메인 식당 공간은 4인용 테이블 24개로 이루어진 96석과 회의실 형태의 30명 수용 가능한 별도의 실로 구분되어 센터의 가장 안쪽으로 배치되어 다목적 홀의 용도로도 사용하고 있다. 이 센터의 특징은 메인 공간 이외에 카페와 스트리트 개념의 윈터가든 아트리움에도 테이블을 배치하여 다양한 모임과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¹⁴⁾

[Table 2] North Shore Senior Center, Arthur C. Nielsen Jr. Campus

 source : http://www.triblocal.com/winnetka-northfield	위치	Northfield, Illinois
	설립 년도	2000.09
	규모	40,000m ² 지상1층
	식당 위치	지상1층

14) The 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 Design for Aging Review, 2004.



[Figure 3] floor Plan of North Shore Senior Center
(source: AIA, Design for Aging Review, 2004)

North Shore Senior Center의 공간구성은 식사 시간 전 후에도 노인들 간에 교류가 가능한 담화 공간을 배치함으로, 식사 시간 전후에 노인들이 여유 있게 대화를 즐기고, 교류를 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다. 다양한 프로그램의 제공도 중요하지만 노인들 간의 비공식적 모임의 역할이 노인들의 자아(self-identity) 유지에 매우 중요한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부분들을 공간적으로 배려하는 것이 최근 국외 시니어 센터 디자인의 특징적인 부분이다.



[Figure 4] The wintergarden : atrium and seating area
(source: AIA, Design for Aging Review,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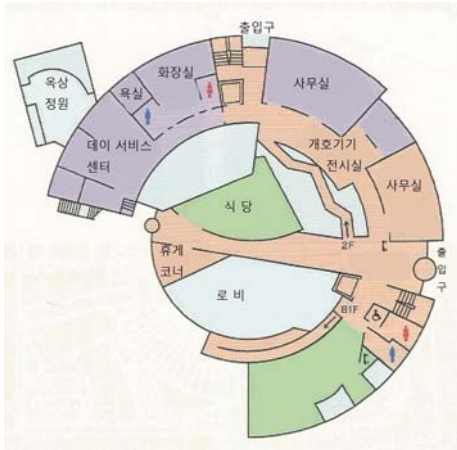
2.2.3 Senbon Plaza

일본 시즈오카현 누마즈시에 위치한 센본프라자는 다양한 이용자를 위한 세대교류센터와 노인복지센터, 재택복지지원 센터를 한 동의 건물에 복합화 하였으며, 지하에 공용공간이 주로 배치되어 있으며 1층은 데이서비스 센터와 재택복지지원 센터가 배치되어 있고, 2층은 노인복지센터의 기능이 배치되어 있다. 지하의 공간에서는 다양한 교류활동이 실시되고 있다.¹⁵⁾

15) 권순정 외, 새로운 복지시설 디자인, 교학사 2011.

[Table 3] Senbon Plaza

	위치	시즈오카현 누마즈시
	설립년도	1995.04
	규모	5,176.5m ² 지하1층~ 지상2층
	식당위치	지상1층



[Figure 5] Senbon Plaza First Floor Plan

1층에 배치되어 있는 식당은 1층의 중앙에 배치하여 접근이 쉽도록 하였으며, 노인들의 이동성과 활용성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레스토랑 입구에 경사로를 설치하고, 너무 깊거나 높지 않은 가구를 사용하여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적절한 공간이 배치되어 있다. 다양한 형태의 식사공간과 휴게공간이 형성되어 있어 노인들이 모임과 대화를 나누기 용이하도록 구성하고 있다.

오픈된 공간에 위치한 식당 공간은 역동적인 디자인의 복도를 지나 접근하여 보다 프라이버시를 제공하면서 시설 전체에 대한 조망 또한 허용하고 있다. 국내의 경로식당의 디자인

[Table 4] 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현황

시설 유형	시설명	시설 위치	건물외관	평면도 (D: 경로식당)	총회원 수(명)	일일 이용자	개원 일시	복지관 연면적	경로식당 면적	경로식당 /연면적 대비	경로식당 위치	입지 유형
노인 종합 복지	북부 (노원)	노원구 하계동			13,500	800	1989	2,448	165	6.7%	지상2층	아파트 단지
	성가정	강동구 고덕동			600	400	1998	2,991	178	5.9%	지하1층	공공 시설 인접

인이 단순히 기능 위주의 사각 형태인 것에 비해 사용자 보다 여유로운 공간에서 식사를 하고 대화가 가능한 공간으로 배려하고 있다.



[Figure 6] Various dining and rest spaces

3. Welfare Center Dining Space for the Elderly in Seoul

서울에 위치한 대표적인 경로식당은 주로 노인종합복지관과 사회복지관에 설치되어 있다. 국내의 복지관 디자인은 기능을 우선시하여, 아직은 공간의 질적 요구보다는 면적을 확보하는데 더 치우쳐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건립시기가 너무 오래되지 않으며, 규모가 협소한 경우를 제외한 11개소의 경로식당을 연구대상으로 일반적인 경로식당의 현황에 대해 조사한 후 Table 7의 체크리스트를 이용하여 경로식당 공간의 질적인 면을 평가하였다.

3.1 Current status of 11 selected welfare center dining space for the elderly in Seoul

조사대상 복지관은 4개소는 2000년대 이후에, 7개소는 이전에 지어진 곳으로 7개소의 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면적은 77~178m²로 평균 면적은 125m²이며 연면적 대비 식당의 면적은 2.6~6.7%로 평균 4.4%를 차지하고 있어 전체 이용인원에 비하면 협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시설 유형	시설명	시설 위치	건물외관	평면도 (D: 경로식당)	총회원 수(명)	일일 이용자	개원 일시	복지관 연면적	경로식당 면적	경로식당 /연면적 대비	경로식당 위치	입지 유형
노인 종합 복지	성북	성북구 중암동			10,700	1,000	1999	1990	106	5.3%	지하1층	저밀도 주거지
	송파	송파구 삼전동			5,000	400	1996	4,901	129	2.6%	지상1층	공공 시설인접
	강서	강서구 등촌동			9,500	900	1999	2,764	115	4.2%	지하1층	상업 지역
	마포	마포구 창천동			17,000	1,000	2000	2,830	77	2.7%	지상1층	상업 지역
	종로	종로구 이화동			5,000	600	2007	2,986	110	3.7%	지상1층	저밀도 주거지

[Table 5] 종합사회복지관 경로식당 현황

시설 유형	시설명	시설 위치	건물외관	평면도	총회원 수(명)	일일 이용자	개원 일시	복지관 연면적	경로식당 면적	경로식당 /연면적 대비	경로식당 위치	입지 유형
종합 사회 복지	가락	송파구 가락동			600	200	1990	1,699	43	2.6%	지상1층	상업 지역
	중계	노원구 중계동			700	400	1992	1,757	40	2.3%	지상1층	아파트단지
	회원	구로구 구로2동			900	200	2005	3,572	103	2.9%	지상1층	저밀도 주거지
	중림	중구 중림동			1500	700	2012	1,288	110	1.0%	지상6층	공공 시설인접

식당의 위치는 4개소는 지상1층, 2개소는 지하1층, 1개소는 2층에 위치하고 있어 비교적 접근성은 좋은 편이다. 대부분의 경우 휠체어 사용자가 접근은 가능하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배려는 되어있지 않은 편이다. 가구배치나 실내 마감재의 사용도 국외의 사례에서 조사된 것 같은 노인들의 행동특성에 맞는 배려는 부족한 편이며, 단시간에 식사를 제공하는데 그치고 있다.

종합사회복지관 내의 경로식당은 노인종합복지관에 비해 면적이 더 협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4개소의 면적은 40~110m²로 평균 74m²로 노인복지관의 60% 수준의 면적을 확보하고 있다. 식당의 위치는 모두 지상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좋으며, 2012년에 지어진 중립복지관은 6층에 위치하고 있어 채광이 매우 좋은 편이나 접근성은 좀 떨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복지관의 경우 출입구와 가까운 곳에 식당이 있어 위험시 탈출하기에 어려운 부분은 없었으나 식당에서 출입구까지의 이동 구간이 다소 좁아 보였으며, 또한 바닥이 비닐 타일로 처리되어 있어 물기가 있을시 미끄럼의 위험이 있었고, 안전 손잡이 또한 노인 분들의 이동 동선에 따라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휠체어 대응의 공간도 구성되어 있지 않아 휠체어를 복도에 보관해 두시고 힘든 몸을 목발에 의지하여 식당을 이용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전체적인 실내 계획은 전면적으로 쾌적해 보였으나 가구 같은 경우 노인을 배려한 가구의 유형을 볼 수 없었다.

식당 이용 시 특별한 대기 공간이 따로 구성 되어 있지 않아서 노인들이 로비에 있는 의자를 사용하거나 식당 옆 계단에 앉아서 기다리고, 건물 외부에 구성되어 있는 테라스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별도의 대기공간과 휴식 공간도 구성 되어져 있지 않아 로비에 배치되어져 있는 의자를 이용하고 있으며, 화장실이 바로 식당의 입구에 배치된 경우도 있어 위생에도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었다.

식당이 지하에 위치한 경우나 건물이 경사지에 배치된 경우에는 식당 내 환기나 채광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다. 식당 내 바닥 마감재는 비닐 타일 또는 대리석으로 되어있어 미끄러움의 위험성이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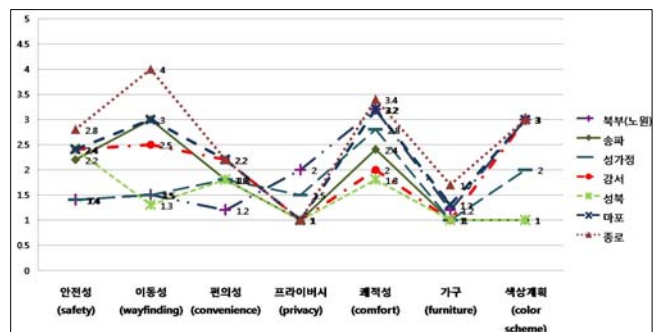
3.2 Results of Space Checklist Evaluation of Elderly Dining Space in Welfare Center

국내 복지관 내 경로식당의 질적인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7개 항목 28개의 요소로 이루어진 체크리스트를 이용하여, 각 항목을 평가하였다. 7개 항목은 문헌조사와 국외의 사례를 분석하여 안전성, 이동성, 편의성, 프라이버시, 쾌적성, 가구배치, 색상계획으로 구성하였고 각 항목은 세부항목에 따라 평가되었다. 각 요소는 5점의 배점을 하여 매우만족(5)-만족(4)-보통(3)-불만족(2)-매우 불만족(1)으로 평가하여 각 항목별 평균을 내어 비교하였다. 연구팀에 의한 평가와 함께, 4개소를

선정하여 개소 당 10명, 총 40명의 직원들이 공간평가를 동일한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복지관 직원 설문에 포함하여, 직원들이 느끼는 경로식당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도 비교 분석하였다. 7가지의 항목은 28개의 세부항목으로 구성되어 평가하였다. 공간 체크리스트를 이용한 공간조사에서는 각 항목별 편차를 나타내고 있는데 특히 프라이버시와 가구배치가 제일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Table 6] Elderly Dining Space Checkli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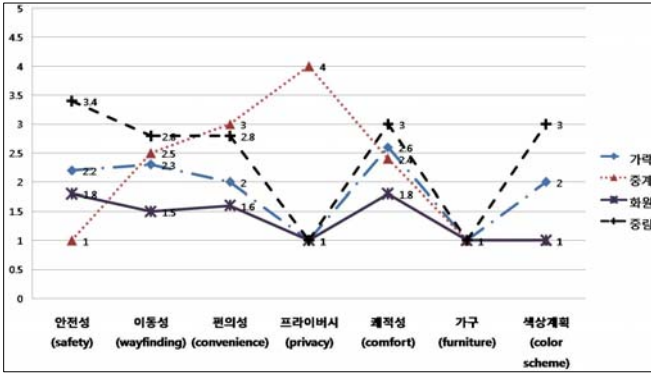
기본 조건	평가요소
안전성 (safety)	신체기능 저하의 대응/장애인, 노인 기준 적용 여부, 긴급시의 대응, 미끄럼방지 마감재, 단차나 경사 여부
이동성 (Wayfinding)	건물 입구에서 경로식당의 이동 동선, 접근성 길 찾기 표식의 적절성, 충분한 이동공간 배려
편의성 (Convenience)	휴식 공간 및 대기 공간 고려, 배식대의 위치와 동선, 화장실의 위치, 다목적실, 보조기구 설치
프라이버시 (privacy)	식사 시 적절한 공간의 프라이버시, 다양한 그룹의 식사 가능 여부. 별도의 방 사용가능 여부
쾌적성 (Comfort)	실내재료 선택/조명계획/소음/실내 환기/채광
가구계획 (Furniture)	가구 선택의 적절성, 가구 조작성의 편의성, 배치, 휠체어 사용 가능 가구, 의자 테이블의 적절성
색상계획 (Color scheme)	노인을 배려한 색상계획의 적절성.



[Figure 7] 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공간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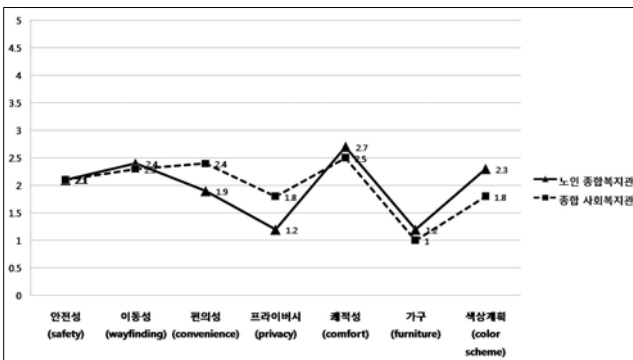
7개소의 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프라이버시는 평균 1.2점, 가구배치도 평균 1.2점으로 평가되었으며, 4개소의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프라이버시는 1.8점, 가구는 1점으로 나타나고 있어 매우 불만족에 가까운 상태를 보이고 있다.

가장 평가가 좋았던 항목은 쾌적성으로 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2.7점, 종합사회복지관은 2.5점으로 다른 항목에 비해서는 나은 편이나 전반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로 나타나고 있다.



[Figure 8] 종합 사회복지관 경로식당 공간평가

노인복지관과 종합복지관의 경로식당평가는 면적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질적인 구성은 차이가 별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두 가지 유형 모두 기본적인 편의성은 갖추고 있지만 노인들의 사회적 교류를 증진시킬 수 있는 공간적인 요소들은 잘 배려되지 않고 있다.



[Figure 9] 노인 및 종합사회복지관 경로식당 공간평가

4. Results of Facility Staffs Questionnaire

복지관 직원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4개소 각 10명씩 4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의 평균나이는 38.6세로 주로 30~40대이며, 직종은 사회복지사가 23명, 영양 및 조리사가 22.5%,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보호사 등 케어 관련 직원이 7.5%, 기타 사무, 관리직종이 12.5%이다.

경로식당의 이용인원은 좌석 수에 비해 대부분 두배 이상, 많게는 5배 이상의 인원이 사용하고 있어, 일반 식당에 비해 훨씬 단시간 내에 많은 인원이 식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용 노인의 연령은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으나 70-75세 노인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남녀 비율도 여성이용자가 더 많으나 지역에 따라 다른 경우도 있었다. 모든 경로식당이 노인전용 식당보다는 직원 또는 방문객 식당과 겸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같이 사용하는 것이 세대간 교류의 차원에서 바람직하나 공간 내에서 일부 노인전용 공간을 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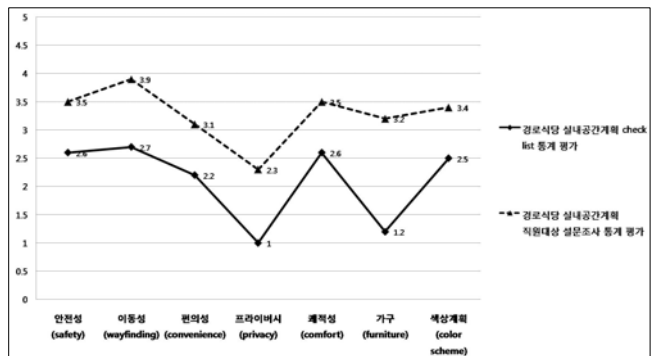
어 몸이 불편한 이용자가 보다 편하게 식사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직원들에 의한 식당공간의 질적 평가 결과는 연구팀의 조사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직원들의 결과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직원 조사에서도 역시 공간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문제가 가장 문제로 지적되고 있었다.

[Table 7] 경로식당 이용현황

시설명	1일평균 이용자	1회 수용인원	이용노인 연령(%)		성별 비율		겸용 사용 여부	기타 사용 인원
			65-70	70-75	남	여		
강서	400이상	50-100	20	80	40	60	겸용	50
종로	200-300	100-150	45	50	40	60	겸용	60
화원	100-200	50-100	45	50	20	80	겸용	100
중립	100-200	50-100	70	30	60	40	겸용	50

모든 좌석이 6인용 이상의 다인석으로 구성된 경우도 있고, 2인석은 전혀 없어 봄비는 시간에는 낯선 사람들과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Figure 10] 공간의 질적 요소에 대한 직원평가와의 비교

특히 영양사 및 조리사 등 식당에 직접 업무를 하는 직원들은 식당의 위치가 1층이 가장 편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지하층의 경우 채광과 환기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조사되었다. 식당 가까운 곳에 별도의 휴게공간이 있어서 식사 전후에 기다릴 수 있는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고, 형태로는 책을 보거나 차를 마실 수 있는 카페 형태를 선호하고 있다.

5. Results of Elderly Users Questionnaire

4개소의 경로식당을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에게 대한 조사는 각 개소 당 15명, 총 6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문항의 구성은 최소한으로 구성하여 답변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문항은

식당의 위치, 길찾기의 용이성, 가구, 소음, 대기 공간 등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자는 여자가 42명, 남자가 18명으로 평균연령은 여자 74.5세, 남자 73.9세로 조사되었다. 주로 70대와 80대의 노인 이용자가 주요 이용대상자이다.

[Table 8]의 내용과 같은 문항조사 결과에서 긍정적인 답변에 비하여 보통이라고 답변한 항목의 비중이 많은 것은 이용자들이 충분히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가구의 형태와 배치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지 않아 이동시의 불편함과 소음, 좌석의 부족으로 빨리 먹어야 하는 부담감이 60%이상 나타나고 있다.

[Table 8] 경로식당 사용자 조사(%)

	조사문항	매우 적합	적합	보통	부적합	매우 부적합
1	식당의 위치	10	65	21.7	1.7	1.7
2	출입구에서 식당까지 길찾기	11.6	71.7	16.7	-	-
3	식당공간의 편의성	3.3	48.3	48.3	-	-
4	식당의 가구 및 배치	1.7	18.3	80	-	-
5	공간 이동시의 편의성	-	26.6	71.7	1.7	-
6	배식대의 위치 및 이용	-	28.3	65	5	1.7
7	식당의 청결도	5	60	33.3	1.7	-
8	식당 내부의 소음	-	18.3	61.7	16.7	3.3
9	내외부 대기공간	-	16.6	70	11.7	1.7
10	식사시 빨리 먹어야 하는 부담감	-	15	61.6	21.7	1.7

추가적인 설문 내용은 경로식당을 이용하는 사유로는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이 좋아서'가 53.3%, "점심 차려먹기가 귀찮아서"가 15%, '취사능력이 없어서' 10%, '따뜻한 점심을 먹기 위해' 10%로 음식 그 자체보다 사회적 교류를 더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주일에 경로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횟수는 5회 이상이 66.7%로 가장 많았고 4회가 26.7%로 대부분 거의 매일 점심식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외 사례와 같이 점심 식사 이외의 제공에 대한 조사는 하지 못했지만 거의 국내에는 사례를 찾을 수 없었다.

경로식당을 이용하면서 가장 만족하는 사항도 '사람들과 만나는 즐거움'이 56.7%로 '따뜻한 점심을 먹는 것'을 선택한 35%보다 훨씬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어 사회적 교류의 장소로서 경로식당의 구성이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식당을 찾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공간의 위치가 60%로 가장 높았고 안내판이나 기타 디자인 요소들에 비해 식당 배치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6. Conclusion

본 연구는 서울시에 위치한 경로식당 공간 조사를 통하여 경로식당 환경 개선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공간의 질적 평가 체크리스트를 통하여 전반적으로 경로식당의 공간이 면적 확보와 기능 이외에 사용자의 행동과 심리적 욕구를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 되었다. 직원조사와 사용자 조사에서도 같은 요소들이 지적되고 있어, 경로식당 환경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실내 공간 계획에 배려되어야 한다.

첫째, 경로식당의 역할이 단순히 식사를 하는 공간만이 아니라 노인들이 즐겁게 모여서 식사를 하면서 사회적 교류를 하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둘째, 편안하게 대화를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식사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이용 인원에게 적합한 식당의 크기를 예측하여 공간계획을 하는 것과, 현재와 같이 단 시간 안에 식사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보다 오래 식당 안에 머물 수 있는 프라이버시가 배려된 공간계획이 필요하다.

셋째, 2인, 4인, 다인의 융통성 있는 가구 구성과 편안한 가구의 선택, 소규모 모임을 가능하게 하는 다목적실의 구성도 바람직하며, 이동식 칸막이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수요에 맞는 구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식사 전후에 대기 공간이 필요하며, 북카페 형식과 담화를 할 수 있는 휴게 공간 등 다양한 소규모 휴게 공간이 식당을 중심으로 배치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국내의 대규모 경로 식당만이 아니라 노인들이 집에서 가까운 위치에 노인들이 원하는 식사와 사회적 교류가 가능한 소규모 커뮤니티 카페의 공간이 제공된다면 노인들에게 자신의 정체성(self-identity)을 유지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여섯째, 식사 공간에 맞는 색상계획 및 탈시설적(De-institutionalizing) 공간 디자인 계획 요소에 대한 배려가 적용되어야 한다.

후속 연구로 노인을 위한 소규모 커뮤니티 내 경로식당의 공간 배치 및 공간 구성의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로 된다. 유사 사례로 고희자를 위한 커뮤니티 카페의 사례 연구를 계획하고 있다.

Acknowledgements: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Basic Science Research Program through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 funded by the Ministry of Science, ICT & Future Planning(No.2012015754)

References

- 박은진, 대구지역 노년기 여성의 영양소 섭취상태 식습관 생활습관과 골밀도와의 관련성,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2006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http://www.law.go.kr/ordinInfoP.do?ordinSeq=513911>
- 송성우, 무료 경로식당 운영실태 및 활성화 방안, 울산대학교 정책대학원 행정학 석사학위 연구보고서, 2011
- 오은진, 박혜선, 커뮤니티 거주 고령자를 위한 식사서비스 환경에 관한 연구, 2014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논문집
- 이병순·김문실·김영순·이남순·권경자·이예중, 노인 복지를 위한 노인 영양관리, 광문각, 2011
- 일본 노년/고령연구회 생존학 E-mail Magazine No.33 <http://www.arsvi.com/2010/20130430emk.htm>
- 홍순명·최석영, 老人의 生活樣式에 따른 食生活實態 分析, 울산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1996
- Criag zimring, A guide to conducting healthcare facility visits, 1994, The Center for Health Design
- Planetree and Picker Institute, 2010 Long-term care Improvement Guide : De-institutionalizing the Dining Experience pp.194-215 <http://www10.aeccafe.com/blogs/arch-showcase/2011/04/20/senior-center-in-san-diego-by-smith-consulting/>
- The 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 Design for Aging Review, 2004

접수 : 2014년 09월 30일
1차 심사 완료 : 2014년 10월 15일
게재확정일자 : 2014년 10월 15일
3인 익명 심사 필